

“능글연기 첫 도전 민망했지만 후련”

영화 ‘검사와외전’서 사기꾼 변신 성공한 강동원



영화 ‘검사와외전’에서 배우 강동원이 능글맞은 사기꾼으로 연기 대변신을 시도한다. 그도 그런 역은 처음이라고 한다.

강동원은 26일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가벼운 캐릭터는 처음 한다”고 밝혔다.

‘검사와외전’은 살인 누명을 쓴 다혈질 검사가 교도소에서 만난 전과 9범의 ‘꽃미남’ 사기꾼과 함께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강동원은 미국 유학생부터 선거운동원, 검사, 조작폭력배 등을 사칭하며 살인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사기꾼 한치원 역을 맡았다.

그는 “(한치원이) 처음부터 그런 캐릭터였는데 본인 연기에 스스로 몰입하는 느낌을 제가 가미했다”고 말했다. 영화가 주는 재미의 대부분이 그가 연기한 한치원이라는 캐릭터에서 나온다.

그는 “한치원이 이 영화의 키포인트이고 다른 영화와 차별화된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검사와외전’이 소재가 그렇게 새롭지 않고 이야기도 단순한 영화로, 캐릭터로 승부해야 하는 오락영화이기 때문에 한치원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 단 웃기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수위조절이 어려웠다고 했다. 어쨌거나 ‘검사와외전’은 범죄영화인데 너무 나가면 코미디가 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한치원이 미국 유학생을 사칭하며 짧은 영어를 구사하는 장면이 무리하면 ‘개그’가 될 수 있을 거 같아 너무 이상한 대사는 뺐다고 했다.

강동원은 “사전에 많이 연습해보고 과한 것은 덜어냈다”며 “적정선을 찾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런 뻔뻔한 연기가 처음이어서 촬영 초기에는 연기가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강동원은 “(극중에서) 처음 본 은행 여직원에게 추파를 던져야 하지만 민망하고 창피했다”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설정이 그렇다 보니...”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한치원 같은 성격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도 내재해 있다고 했다. 그는 “나이를 먹으니깐 능글거림이 생기더라”며 촬영하면서 “속은 시원했다. 저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라고 말했다.

해외 진출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할리우드가 아니라 아시아 쪽이다. 그는 “우리 영화가 해외로 나가려면 먼저 배우가 나가는 것이 맞다. 해외에서 인지도가 없으면 개봉할 수 없으니 산업적으로 배우가 먼저 진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리우드로 진출하기보다는 아시아 시장을 만들어 우리가 더 잘 찍고 싶다”며 “한국에서 수백억짜리 영화를 만들어 전 아시아에 동시 개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열악한 촬영 여건에 대한 한마디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세트장에서 촬영하고 나면 시커먼 콧물이 나올 때가 있다”며 “좀 더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 예산이 없으니 일정에 너무 쫓기고 스태프들도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올 설엔 듀엣이 뜬다”



MBC ‘듀엣가요제’·SBS ‘판타스틱 듀오’ 등

발라드, 락, 힙합...

지난해 추석 특집으로 걸그룹 멤버와 일반인 참가자의 듀엣 무대를 방송했던 MBC ‘듀엣가요제’가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로 돌아온다.

내달 설 특집으로 방송되는 ‘듀엣가요제’의 연출을 맡은 강성아 MBC PD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히트곡이 굉장히 많거나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라인업은 아니지만 젊고,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가수들을 모았다”고 새단장한 ‘듀엣가요제’에 자신감을 보였다.

올 설 연휴에 방송되는 SBS TV ‘판타스틱 듀오’도 비슷한 콘셉트다.

강 PD는 “추석 특집 때 정규 편성이 되지 못하면서 저희가 ‘듀엣가요제’를 다시 할 것이라고 다른 방송사에서 생각을 못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다”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 ‘듀엣’ 콘셉트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웃기도 했다.

‘듀엣가요제’는 지난해 추석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고 시청률도 7%로 우수했지만 ‘복면가왕’·‘불후의 명곡’(KBS) 등 음악 프로그램과 비슷한 면이 많아 정규편성에는 실패했다. 제작진이 택한 차별화 방안은 장르의 다양화. 지난 추석 그룹 씨스타의 멤버 소유와 에이핑크의 김남주, 에이오에이(AOA)의 조아 등 아이돌 여가수가 출연했던 것과 달리 이번 설 특집엔 버즈의 민경훈, 정준영, 지코 등 남자가수가 흥진영과 같은 트로트가수까지 포진했다.

강 PD는 “사석에서도 여성과 듀엣곡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일반인 참가자를 선택할 때 남자는 보지도 않았다”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설 특집 ‘듀엣가요제’의 순위는 청중 평가단 500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내부자들’ 감독판 200만 관객 돌파



영화 ‘내부자들’의 감독판이 관객 200만명을 돌파하며 감독판/확장판 영화의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다.

26일 영화 배급사인 ㈜쇼박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내부자들 : 디 오리지널’의 누적 관객 수가 200만1179명으로 집계됐다.

‘내부자들 : 디 오리지널’은 지난해 12월 31일 개봉한 이후 6일만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7일째에 다시 200만명을 넘어섰다.

‘내부자들 : 디 오리지널’은 ‘내부자들’의 감독판으로, 기존 극장판에서 인물들간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량이 50분 추가됐다.

현재 개봉 중인 영화 중 관객 200만명 이상을 끌어들인 영화가 ‘히말라야’ 외에 이 영화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독판 영화로서는 놀라운만 관객 동원능력이다.

‘내부자들’의 기존 극장판 관객 수가 707만명으로, 감독판 관객 수까지 더한 합산 관객 수는 900만명을 웃돈다. ‘내부자들 : 디 오리지널’은 현재 전국의 300여개 스크린에서 상영 중이다. 관객이 늘어날수록 감독판/확장판의 신기록이 계속 경신되는 셈이다.

원미경 14년 만의 컴백 ... 화보 ‘눈길’

1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배우 원미경(56)이 화보를 공개했다.

원미경은 26일 월간지 여성중앙 2월호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저를 보는 사람들이 ‘나만 늙은 게 아니네. 원미경도 같이 늙어가네’ 그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원미경은 “배우라고 해서 늙음을 멈추고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이나”면서 “사실 늙음도 아름다움이고, 신이 인간을 늙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도 하지 않나”고 말했다.

원미경은 이밖에 다음 달 방송되는 MBC TV 주말드라마 ‘기화만사상’으로 복귀하는 심정과 14년간의 미국 생활 이야기, MBC PD 출신 남편 이창순과 세 자녀의 근황 등을 인터뷰에서 밝혔다

원미경은 1987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1등을 한 이후 배우로 데뷔했다.

드라마 ‘사랑과 진실’, ‘아파트’, 영화 ‘청춘의 덫’ 등에 출연하며 최고의 여배우로 활약했던 그는 2002년 MBC 드라마 ‘고백’을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콧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계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빛가족(재)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⑪ 30 부르면 갑니다 머슴아들(재)	00 네트워크 특서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재) 55 안녕 우리말(재)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 객주2015〉 (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0 닥터 365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50 SBS 12뉴스					
⑫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완벽 더 해피엔딩〉(재)	45 닥터 365 55 건강클리닉					
①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②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00 열린 TV시청자세상					
③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25 한국인의 밥상(재) 55 튜튼생활제조(재)	05 후토스 일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35 프리파라	00 3시 뉴스브리핑					
④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강(재)	00 TV유치원 30 아육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0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40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강정책 방송연설	00 고향이 보인다 30 구러기 탐구생활					
⑤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베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바이클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낚시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KBC 생방송 투데이					
⑦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필 통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라부따 20 일일드라마 〈내려의 성〉					
⑧ 20 먹거리 X파일(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 토론 “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 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리멤버-아들의 전쟁〉	00 드라마스페셜 〈리멤버-아들의 전쟁〉					
⑪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백병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⑫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다문화 사랑 06:10 세계의 눈 〈위기의 북극곰〉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꼬마버스 타요 07:45 로보가 폴리 08:00 덩동명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고수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대파국과 소고기파산적〉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재) 〈황금빛 미소의 땅,미얀마 3부 월드소수민족을 찾아서〉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사선에서 13:0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3:40 사이틴-지구인 자객평가 13:50 우당탕탕 아이큐 14:00 초등 2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20 초등 6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40 초등 4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명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가 폴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3 18:45 스쿨댄스 절대비법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플루토 비밀결사대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애벌레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섬진강의 겨울〉 20:50 세계테마기행 〈호주 동부 3,000km 낭만 유랑〉 21:30 한국기행 〈태안반도 겨울이야기〉 21:50 EBS 다큐 프리인 〈황금 비늘의 비밀 / 양코르 톰〉 22:45 극한직업 〈흑산도 겨울 흥어잡이〉 23:35 장수의 비밀 24:10 한국영화특선 〈선생 김봉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7일(음 12월 18일 戊申)			
子	48년생 예상보다는 나은 결과이다. 60년생 스스로 처리했을 때 가장 알차고 보람 있겠다. 72년생 지나치면 모순이 따를 수밖에 없다. 84년생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심정을 이해해 주는 이가 그 어디에 있겠는가? 행운의 숫자 : 75, 08	午	42년생 건너야할 강에서 때맞추어 나룻배가 다가오는 격이다. 54년생 얻드려 있는 호랑이가 보인다. 66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만한 상황도 아니다. 78년생 형식을 멀리하고 실사구시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68, 14
丑	49년생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61년생 다름을 알면서도 화목할 수 있는 처세가 절실하다. 73년생 성급하게 임한다면 막힘이 많다. 85년생 급변하고 있는 추세니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5, 41	未	43년생 복덕의 원인이 있으면 과보는 따르게 마련이다. 55년생 상대의 절실한 요청이 있을 것이나라. 67년생 효율성의 시각에서 가치를 잡는 것이 생산적이나라. 79년생 사소한 국면에 사로잡히지 말고 편견 없이 대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74, 21
寅	50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로 볼 수 있으나 안심해도 되는 단계이다. 62년생 누구든지 회자 정리하는 법이다. 74년생 쓸모없다고 여겨왔던 것이 오히려 이롭다. 86년생 무난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행운의 숫자 : 50, 25	申	44년생 대단한 효과가 있다. 56년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확실하 해둘 필요가 있다. 68년생 위안을 주는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80년생 무의식중에 한 연행이 화근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82, 04
卯	51년생 실수한다면 의외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아. 63년생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마당이다. 75년생 활기 찬 하루가 될 것이니 용기백배 하자. 87년생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81, 32	酉	45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흉한 일을 당하게 된다. 57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69년생 한계 상황에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발단이 될 것이다. 81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부작용으로 나타날 공간이 크다. 행운의 숫자 : 60, 93
辰	40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52년생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64년생 백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낫다. 76년생 소모적인 걱정은 심신만 쇠잔케 할 뿐이니라. 88년생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3, 67	戌	46년생 급작한 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부수적인 일은 보류해도 된다. 58년생 운로는 좋으나 연행만 주의하면 된다. 70년생 상대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거든 기존 방식대로 이행하라. 82년생 금권에 휘둘리게 될 수도. 행운의 숫자 : 39, 83
巳	41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53년생 기가 막히리라. 65년생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77년생 좋은 것만은 아니다. 89년생 흑과 백만을 구분하려 하지 말고 회색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1, 86	亥	47년생 인내는 곧 보람의 열쇠가 될 것이다. 59년생 결과 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71년생 몇 번 되풀이 되는 듯하다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83년생 매우 갑작스러운 일이 터지는 대목이로다. 행운의 숫자 : 90, 9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